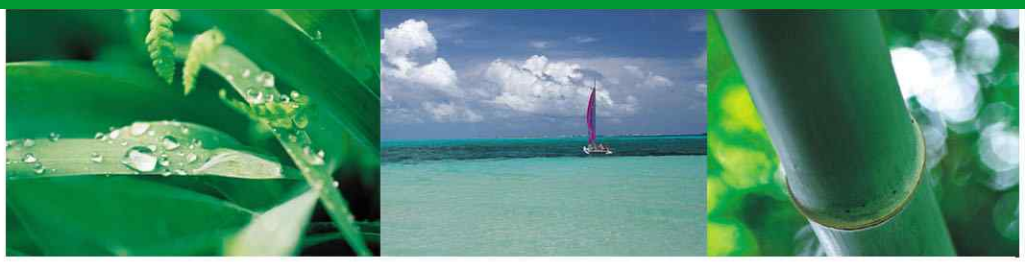
주간건설 Review

649호 2020.11.6(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생방송 부동산 토크쇼'
- 롯데건설,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상 2년 연속 수상
- 포스코건설,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착수
- 한화건설, 주거브랜드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 개발
- 대림산업 배원복 대표, 부회장으로 승진

▣ 건설경제 일반동향

- 2021년 건설시장 전망
- 해외건설근로자 건보료 논란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완화 법안 국회 심사 예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마련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0.10.31(토)~2020.11.6(금)> | 제649호 2020.11.6(금)

<업계 동향>

◈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생방송 부동산 토크쇼'



왼쪽부터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사진. 오른쪽은 문관식 부동산 컬럼니스트(필명 '아기곰')의 프로필 이미지

○ 11월6일 현대건설이 공식 유튜브 채널 '힐스 캐스팅'을 통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생방송 부동산 토크쇼를 진행하였음

○ 이번 생방송 토크쇼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이벤트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2020년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였음

○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건설업계 최초로 사이버 견본주택 언택트 라이브 방송인 '쌍방향 소통쇼'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는 등 기존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롯데건설,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상 2년 연속 수상



세종 레이캐슬 G&R(Golf & Resort) 클럽하우스

○ 롯데건설은 11월3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개최한 '2020년 가을 학술대회'에서 '세종 레이캐슬 G&R(Golf & Resort) 클럽하우스'의 시공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학회상을 수상하였음

○ 콘크리트학회는 1989년 설립된 전문 학술 단체로, 1만여 명이 넘는 개인 회원과 400여 단체의 특별회원을 두고 있으며, 콘크리트학회상은 콘크리

트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음

○ 올해 롯데건설이 수상한 세종 레이캐슬 G&R 클럽하우스는 세종시 소재 27홍제 대중골프장으로 2019년 6월 준공됐으며, 구조체인 콘크리트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돼 마감재의 역할까지 하는 노출콘크리트 건물임

○ 통상적으로 노출콘크리트 건물은 콘크리트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과 철근에 녹이 생길 수 있어 시공 품질 확보가 까다로운데, 롯데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초기부터 롯데건설 기술연구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및 양생 관리, 거푸집 시공 및 철근 배근 관리 등 균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고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콘크리트학회상을 수상하였음

◈ 포스코건설,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착수

○ 11월3일 포스코건설은 최근 에쓰오일, 중소기업 2곳과 기술협약을 맺고 철강·정유 부산물을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건설이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슬래그에 정유 부산물인 유황을 융합해 만든 시멘트가 콘크리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고 상용화에 착수한데 따른 것임

○ 포스코건설은 철강·정유업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폐기해야 할 철강·정유 부산물을 경쟁력 있는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동반성장모델이 된다며 환경친화적인 모델로도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화건설, 주거브랜드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 개발

○ 10월30일 한화건설은 주거브랜드 포레나(FORENA)의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음

○ 이번에 개발된 8개 캐릭터와 100여 종의 디자인은 포레나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휴게공간, 계단 등 공용공간에 우선 적용돼 자칫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물에 감성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하였음



포레나 프렌즈 캐릭터

○ 캐릭터는 입주를 시작하는 '포레나 광교', '포레나 영등포', '포레나 노원'부터 적용될 예정임

◈ 대림산업 배원복 대표, 부회장으로 승진

○ 10월30일 단행된 대림그룹의 2021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였음



배원복 부회장

○ 배원복 부회장은 1961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랭커스터대 경영학석사(MBA)와 카이스트 비즈니스 스쿨을 수료하였으며, 1984년 LG그룹에 입사해 2007~2017년 LG전자 부사장을 역임한 후 2018년 대림오토바이 대표를 거쳐 2019년 대림산업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으로 취임하였음

○ 한편, 대림그룹은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대해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며, 전문 임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 2021년 건설시장 전망

○ 11월5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021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2021년 국내 건설수주가 171.8조원으로 최근 3년간의 수주증가세를 마감하고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

<주요내용>

❒ 2021년 국내 건설시장 전망

-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181.8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반면, 2021년에는 최근 3년간의 수주증가세를 마감하고 전년대비 5.5% 감소한 171.8조원에 수준에 머물러 최근 3년간의 수주증가세를 마감하고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

<2021년 건설시장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전망)			2021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전망)	소계 (전망)	상반기 (전망)	하반기 (전망)	소계 (전망)
합 계(조원)		154.5	166.0	82.7	99.1	181.8	80.1	91.7	171.8
증감률(%)		-3.7	7.5	0.9	13.1	9.5	-3.2	-7.5	-5.5
발주자별	공공	42.3	48.1	21.0	29.8	50.8	22.4	29.2	51.6
	증감률	-10.3	13.5	7.0	18.0	5.7	6.5	-1.9	1.6
	민간	112.2	118.0	61.7	69.3	131.0	57.7	62.5	120.2
	증감률	-1.0	5.2	-1.0	10.9	11.0	-6.5	-9.8	-8.2
공종별	토목	46.4	49.5	18.2	32.1	50.3	20.2	31.1	51.3
	증감률	10.2	6.7	1.5	11.0	1.7	11.0	-3.1	2.0
	건축	108.1	116.6	64.5	67.0	131.5	59.9	60.6	120.5
	증감률	-8.7	7.8	0.7	13.9	12.8	-7.2	-9.5	-8.4
	주거용	56.5	65.4	37.6	41.6	79.2	36.1	34.5	70.6
	증감률	-17.5	15.8	6.3	23.7	21.0	-4.1	-17.0	-10.9
	비주거용	51.6	51.1	26.9	25.4	52.3	23.8	26.1	49.9
	증감률	3.4	-1.0	-5.2	2.8	2.3	-11.5	2.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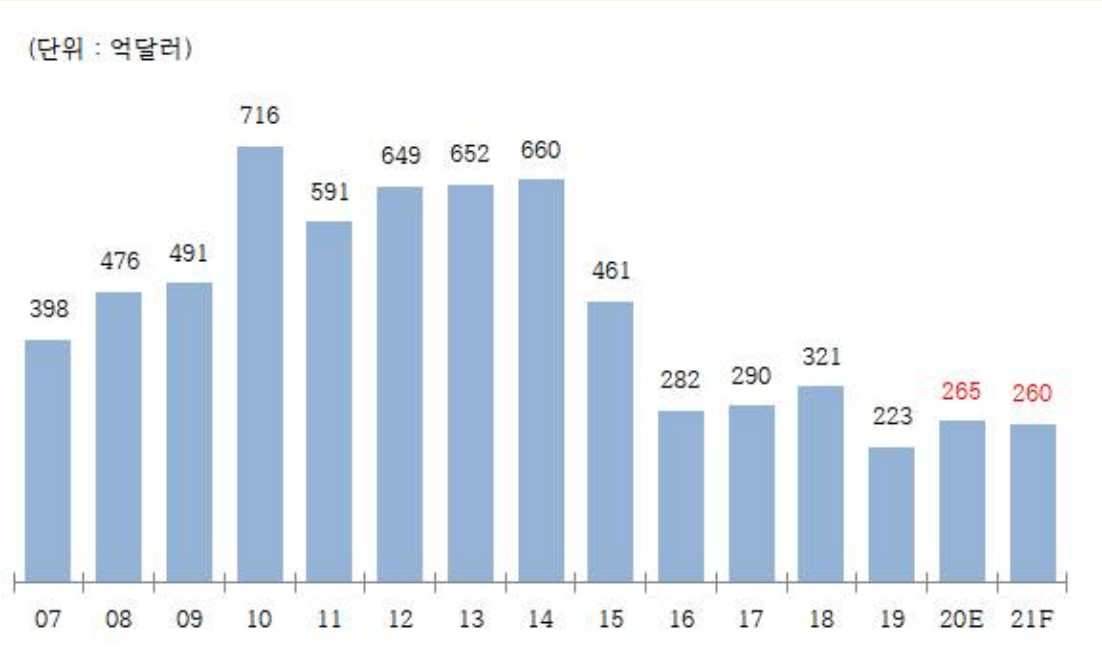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2021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 2021년에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지속으로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은 전년도의 주택수주 호황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주택수주 감소세가 예상되어 그 동안의 수주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 다만, 2021년 건설시장은 주택 등 민간건설 수주의 감소세 전환과 함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미분양주택 감소와 주택착공물량 증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지속으로 큰 폭의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양적완화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할 필요
- 아울러 최근 수년간의 지속적인 잉여 현금흐름을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 투자 확대, 신규사업 인수 등 다양한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

❒ 2021년 해외 건설시장 전망

-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도의 223억 달러에서 26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한 260억 달러로 전망되어 부진한 실적추세 지속

<연도별 해외건설수주 추이 및 2021년 전망>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2021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부진은 해외 발주 감소에 따른 영향보다는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입찰과 일부 건설사의 플랜트 사업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사업지의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 손실 확대, 해외사업지역에 대한 건설사들의 근본 인식 변화로 성장동력을 기존 해외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해외건설시장의 경우 국내 건설사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사들에게도 모두 어려운 국

면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임

❒ **2021년 건설경영 주요 쟁점과 대응**

- 2021년에는 “단기적으로 매출·이익 수성, 사업재편을 전제로 한 중기계획 병행”이 건설경영전략수립의 핵심이 될 것
- 2021년에는 건설투자 개선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및 각종 신규 정책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사업 리스크 확대는 물론 경제 전반의 구조 재편에 대응한 사업구조 재편이 건설사들의 당면 과제로 부상할 것
- 국내 공공부문의 경우 협력 및 공생·전통적 공종의 디지털 대응 및 미래 지향적 공종의 mix가 필요
- 주계약자 공동도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생활형 SOC 등 대응을 위한 지역업체 및 협력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계약관리, 공사 현장 안전 및 품질, 노무관리 대응을 위한 현장소장의 관리 역량 제고, 기술제안공사 대응을 위한 현장 설계변경 및 설계 VE 역량 강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도시, 공공재건축 등 새로운 사업분야 발굴 등이 세부내용으로 제시
- 국내 민간부문의 경우 기존 수주물량 관리 및 수익성 관리 강화가 핵심
- 해외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현장 사업관리와 협상력 발휘로 수익성 확보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이를 통한 해외수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근로자 건보료 논란

○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논란

<주요내용>

❒ **현황**

-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
- 동 개정안은 국외 체류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여행 목적 등으로 단기 출국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정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느라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머물 수 없는 해외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에 불똥이 튀면서 정부가 해외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건설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적용과 주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다보면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머물기 어려운 여건이고, 국내 건설사 대부분의 해외 건설현장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휴가 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 탓에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국내 휴가를 선택하고 있음

-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해외건설현장에 3개월 넘게 체류하기가 불가능한데,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머물러야 면제받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과 건강보험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
- 3000~4000명에 이르는 대형건설사 10곳의 해외건설근로자들은 적게는 8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
- 해외건설근로자 개인별로는 연간 150만~6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중소·중견건설사로 범위를 넓히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현장이 많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현지 의료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해 해외건설사와 기업들은 이중 납부로 인한 부담까지 겪고 있음
- 현재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건설현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에 따라 현지 자재와 인력 수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많은 현장에서 준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체력이 약해진 해외건설현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

❒ 개선방향

- 해외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국외 체류 1개월 이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해외건설업계의 주장 확산
- 해외건설현장에 3개월 이상을 머물 수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해외건설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정부가 해외건설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완화 법안 국회 심사 예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11일부터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사에 본격 나설 예정

○ 당초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김경협·김상훈·김태흠·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짐

○ 기획재정부가 SOC사업에 한정해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9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국민의 힘 의원 중 일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개정안 주요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상향 조정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할 사항 명시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효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 정책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함

❒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타기준 현실화

-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다목적댐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함

❒ 주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시설 등 예타기준 현행유지

- 상기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현행 유지

*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기타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

-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1월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던 '부실벌점 산정방식(평균방식)'을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

-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함

❒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하여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

❒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 제한

-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함

❒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

-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

-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

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

◈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마련

○ 조달청은 10월30일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해 공개함

○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함

<'표준일위대가' 적용에 따른 이점>

❒ 임의 물량 삭감 관행 배제

-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었으나, 표준일위대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

❒ 내역서 작성 간편 및 입찰기간 단축

- 표준일위대가로 설계할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고, 내역서 오류로 인한 협의 등을 줄일 수 있어 입찰기간 단축도 가능